

<NECA 공명: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게 수술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?>

위식도역류질환자 치료법에 관한 공동 합의문

□ 2019년 12월 5일,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제2차 원탁회의 「NECA 공명」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방법에 관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식도역류질환이란?

- 위식도역류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. 불편한 증상은 경도의 증상들이 일주일에 2일 이상 발생하거나, 중등도 이상의 증상들이 일주일에 1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한다.
 - 전형적인 증상으로 가슴 쓰림이나 위산 역류 등이 나타나며, 비전형적 증상으로 흉통, 만성기침, 쉰 목소리, 천식, 목이물감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.
 - 위식도역류질환은 재발이 잦으며, 주로 만성적인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.

2. 위식도역류질환 약물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는?

- ‘양성자 펌프 억제제(PPI)’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로,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역류 증상 개선 및 식도염 치료에 도움을 준다.
 - 국내에서 발표한 「위식도역류질환 임상진료지침 개정안(2012)」에 따르면, PPI 치료 효과에 관한 국내외 이견은 거의 없다.
- 위식도역류질환의 초기 치료방법은 표준용량의 PPI를 최소 4-8주간 투여하는 것으로, 이후 증상 정도나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요법이 필요하다.
 - PPI를 장기 복용할 경우, 고가스트린혈증 및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위산 분비 저하로 칼슘, 비타민 B12, 철분, 마그네슘의 흡수에 영향을 주어 골밀도 저하, 골절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.

3. 위식도역류질환 수술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는?

○ 항역류 수술*은 서구에서 표준화된 수술법이며, 최근 국내에서도 수술의 안전성 및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.**

* 식도 조임근(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서 위산의 역류를 막는 근육)이 약해지면 위식도 역류질환이 생긴다. '항역류 수술'은 느슨해진 하부 식도를 위의 바닥부분(위저부)으로 감싸주어 근육을 조여 주는 수술이며, 주로 복강경으로 시행된다.

** Park, S., Park, J. M., Kim, J. J., Lee, I. S., Han, S. U., Seo, K. W., & Kwon, J. W. (2019). Multicenter prospective study of laparoscopic Nissen fundoplication for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in Korea. *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*, 25(3), 394.

○ 수술 부작용으로는 삼킴장애(연하곤란)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, 이는 수술 후 일시적인 식도 부종 및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다.

4.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게 수술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?

○ 객관적 검사(내시경 검사, 24시간 식도산도검사, 식도내압검사 등)를 통해 위식도역류질환으로 확진되고,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술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.

- 1) PPI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만, 장기적인 약물치료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을 원하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
- 2) PPI로 증상이 완전하게 조절되지 않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

5.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영역

○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자료를 이용한 장기 약물치료의 유용성 및 비용-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.

○ 미국위장관내시경외과학회(SAGES, 2010)에서 제시한 위식도역류질환 확진 환자의 다음 수술 적응증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.

- 1) 바렛식도, 소화성 궤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
- 2) 천식, 쉼 목소리, 만성기침, 흉부통증, 흡인 등 식도 외 증상을 보이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

※ 본 합의문은 상단의 2개 기관이 공동 합의한 내용입니다. 문장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